

공원으로 서의 도서관

오동숲속도서관

장윤규, 신창훈

운생동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10
용도	공공도서관, 북카페
대지면적	997.5m ²
건축면적	431.2m ²
연면적	431.2m ²
규모	지상 1층
높이	5.5m
건폐율	43.22%
용적률	43.22%
구조	목구조
설계	장윤규, 신창훈
설계담당	김봉균, 한나레, 고영동, 이시영
시공	원하건설(주)
기계·전기설계	(주)건양엠이씨, (주)전기설계협인
설계기간	2020.6.~2023.1.
시공기간	2021.12.~2023.4.
건축주	성북구청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박공 지붕



오동숲속도서관이 자리한 곳은 목재파쇄장이 있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폐목재와 오래된 블록담만 있던 버려진 공간이었다.
이에 새로운 건축적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할애할 수 있는
공공쉼터를 제안하였다. 책이라는 매개체와 공원 방문객의 쉼터라는
두 가지를 접목해서 도서관이자 책쉼터를 제안하였고,
공원의 풍부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목구조를 이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를 만들고자 하였다.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도서관의 모습



© 남궁진(온열통건축사사무소 제공)



© 남궁진(온열통건축사사무소 제공)



상 공원 산책로와 도서관
하 오동숲속도서관 전경



상 서가와 독서공간
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책꽂이 월



상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복도형 서가
하 풍부한 자연채광을 제공하는 지붕 틈과 창

100평이 안 되는 작은 도서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공간감을 느끼며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혼자서 튀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목구조의 나무를 활용한 공간을 제안하였다. 딱딱한 철골구조나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공원의 자연과 같은 목구조를 활용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고, 자연채광이나 자연환기 같은 친환경적인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 파인조(민선애 건축사무소 제공)

오동숲속도서관 부출입구가 보이는 화단

도심 속 쉼터

우리 일상 속의 숨겨진 공간을 찾아내고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였다. 오동숲속도서관이 자리한 곳은 목재파쇄장이 있던 곳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폐목재와 오래된 블록담만 있던 버려진 공간이었다. 이에 새로운 건축적 제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할애할 수 있는 공공쉼터를 제안하였다. 책이라는 매개체와 공원 방문객의 쉼터라는 두 가지를 접목해서 도서관이자 책쉼터를 제안하였고, 공원의 풍부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목구조를 이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를 만들하고자 하였다.

도심에 있는 아파트 지역이지만 오동공원 주변의 산세는 가파르다. 마을버스에서 내려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미 고도가 높은 산 안에 있게 된다. 도심의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는 만큼이나 산내음이 코를 간지럽히고 떨어지는 나뭇잎과 꽃가루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후각과 촉각의 장소이다.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이리저리 오가는 공원의 초입에 자리한다. 도서관 바로 앞에는 맨발 걷기 운동장이 마련되어 있어 스스럼없이 운동화와 양말을 벗어 놓고 팔을 휘저으며 걷는다. 산세를 담은 듯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박공 지붕, 나무로 둘러싸인 숲속 나무 옹이가 드러나는 기둥의 목조 건축물. 야트막한 단층의 목조 도서관은 공원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조용히 어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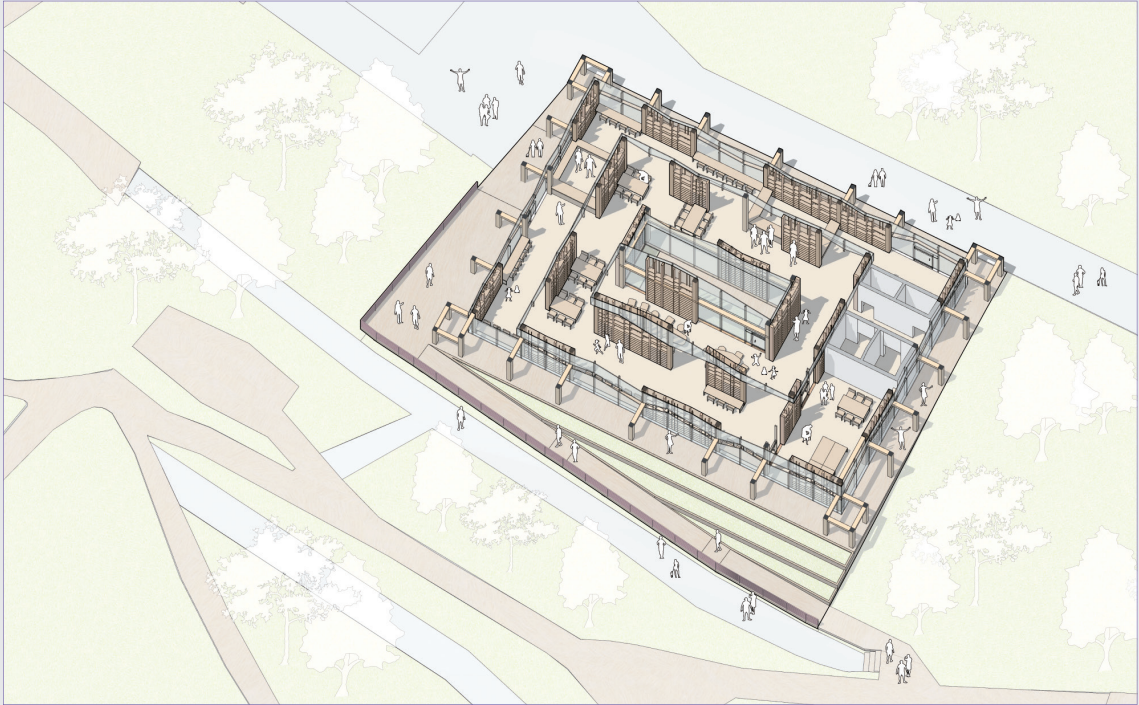
산책로로서의 건축

오동공원은 도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산책로를 가진 흥미로운 공원이다. 오동숲속도서관은 산책로의 시작점과 같은 위치에 자리 잡아 공원 길의 연장으로서의 공간을 구성한다. 산세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산책로 개념을 높이가 다른 책장으로 구성하였고, 산책로의 연속되는 길의 형식을 빌려 위를 덮는 공간 구성을 통해 산의 형식을 가지는 지붕을 만들었다. 입구에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안으로 들어가면 단면적 공간감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실제 중심부 층고가 더 높기도 하고 지붕 아래부터 바닥까지 창을 내서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기 때문이다. 지붕을 이루는 삼각 프레임 사이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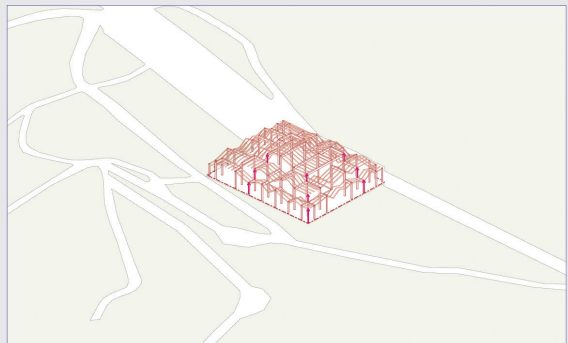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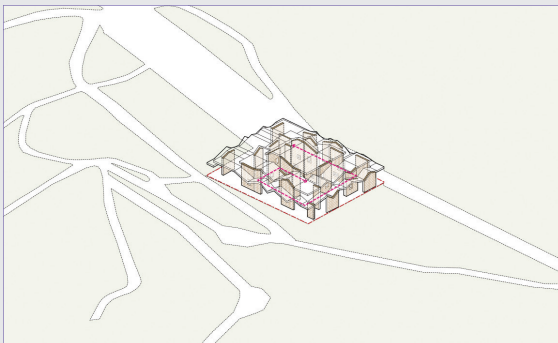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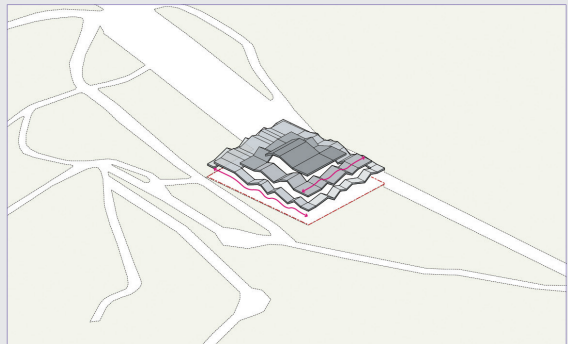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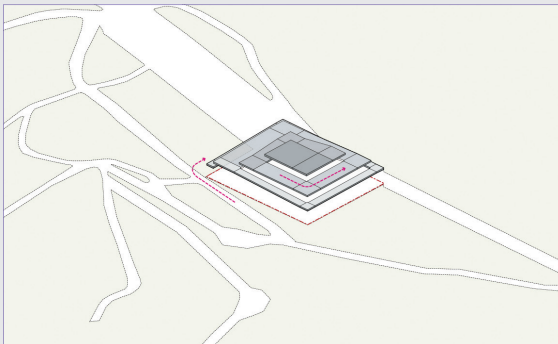
© 피에르 파울리니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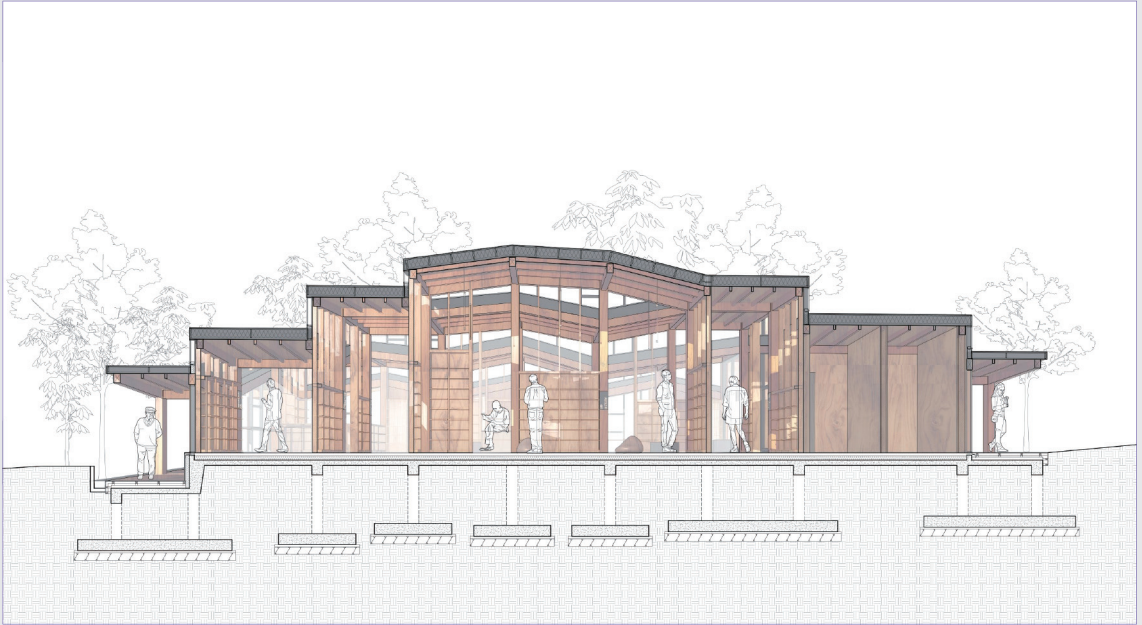
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박공 지붕
하 오동숲속도서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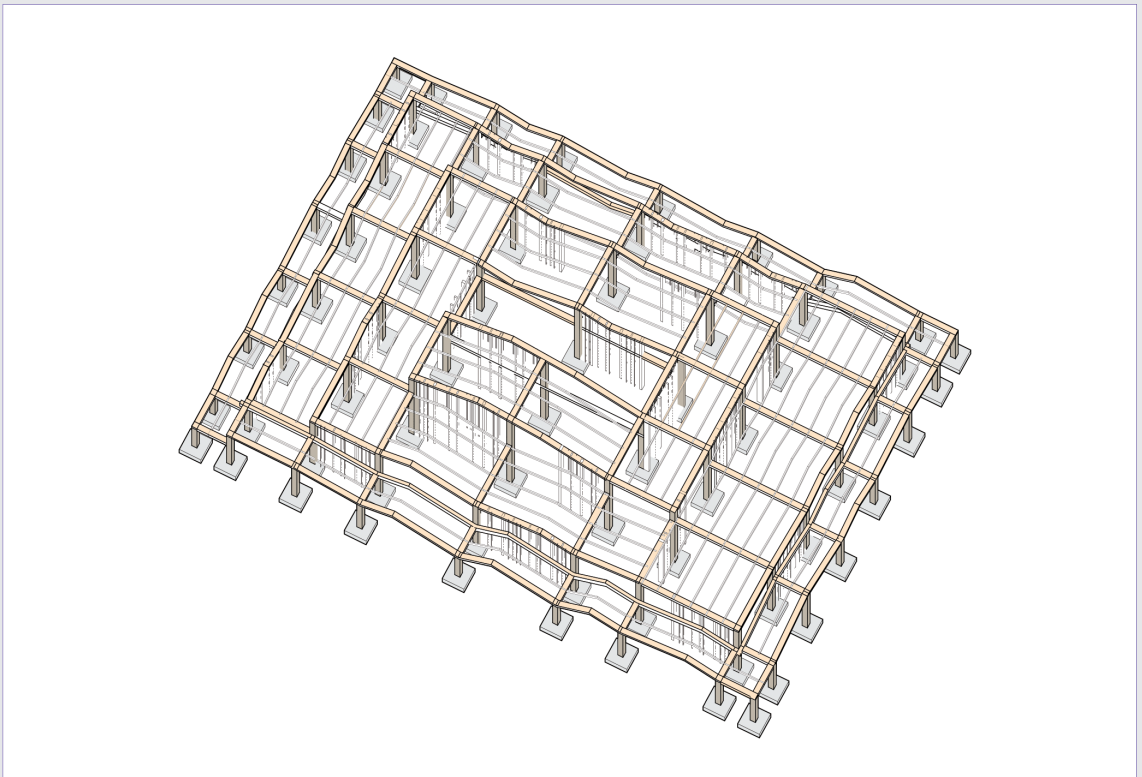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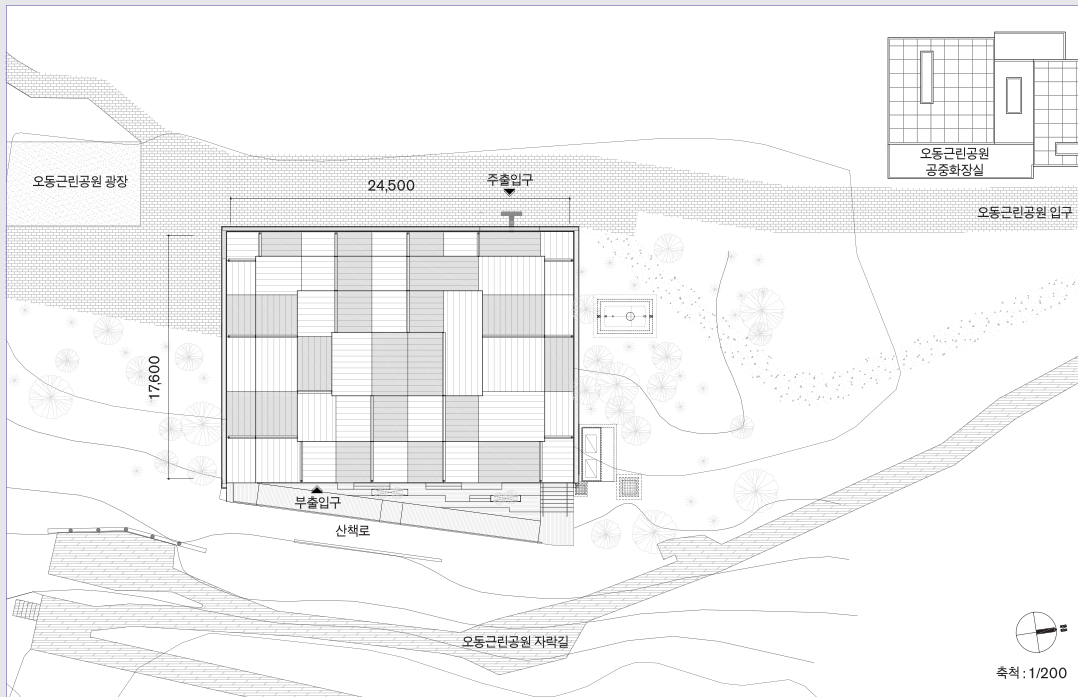
콘셉트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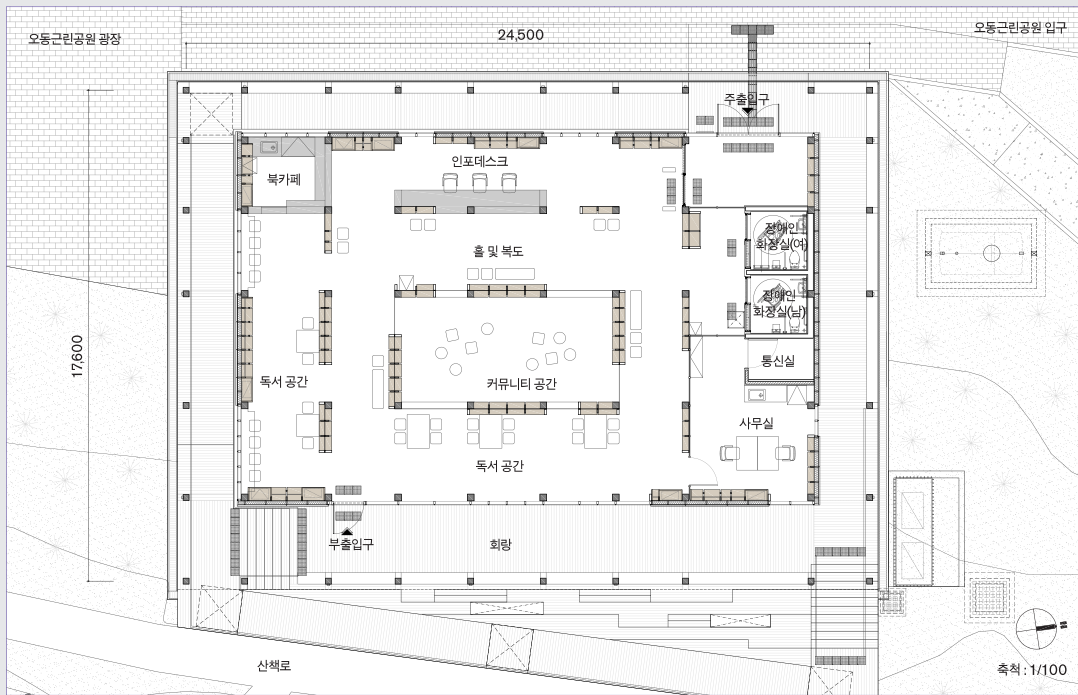
단면 다이어그램



구조 다이어그램



배치도



지상 1층 평면도

형 창호들과 책꽂이 틀의 다양한 겹침은 병치는 주변의 풍경과 자연의 빛을 받아들이는 틈새의 장치라 볼 수 있다. 주간에는 실내 조명을 모두 꺼도 될 만큼 햇빛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형성된 지붕 공간은 서로 다른 높이의 차이를 가짐으로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 틈 사이로 비치는 풍경과 하늘, 그리고 쏟아지는 빛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벽에는 조망을 위한 창을 적절히 배치하여 투명함을 확보하였고, 자연채광과 어우러지는 반외부적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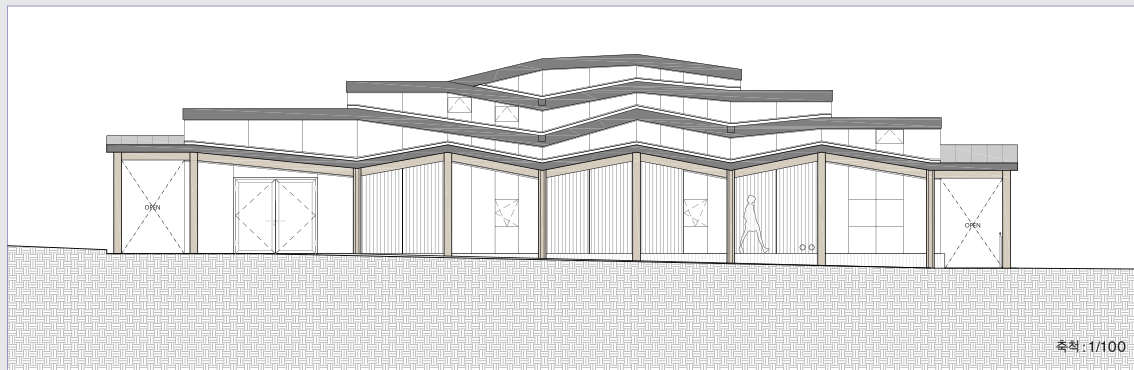
내부로부터의 건축

공간을 이루는 기본단위를 일반적인 월(wall)이 아닌 책꽂이 월 구조로 변형하여 하부에 열린 공간을 구성하였다. 나선형으로 접힌 박공 지붕은 서로 다른 높이의 차이를 가짐으로써 그 사이로 자연 채광이 쏟아지는 경험을 가진다. 책꽂이 월은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이면서, 분할하고 배분하는 장치이다. 과거의 월이 구조적 한계에 의해서 고전적이며 공간적 소통을 막아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제안하는 책꽂이 월은 유동하는 공간을 구성하여 서로 소통하며 통합되고 혹은 적절히 독립되는 이중적인 미로 구조를 재현한다. 책꽂이 월의 배치와 크기는 프로그램 배치와 구조의 적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오동숲속도서관에서 개별적 공간이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아마도 서로 다른 크기의 책장을 통해 구성된 다른 공간감,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빛과 주변의 풍경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가구와 공간과 구조의 조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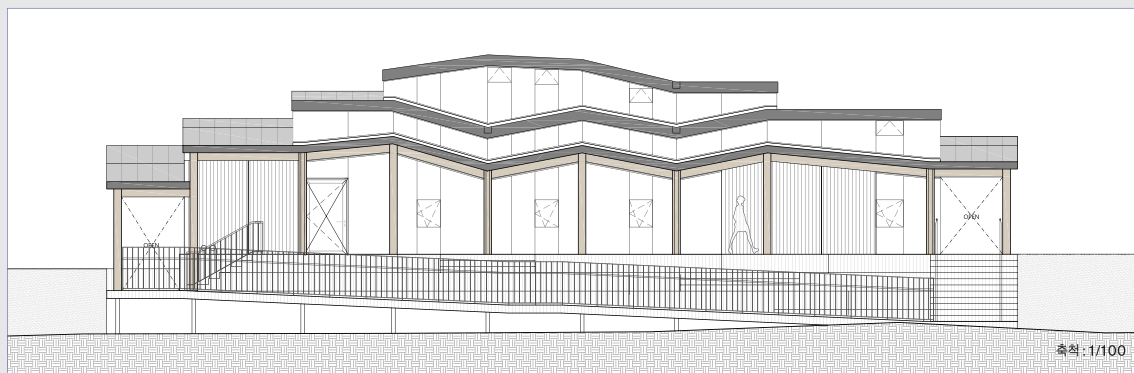
© 2014 오동숲속도서관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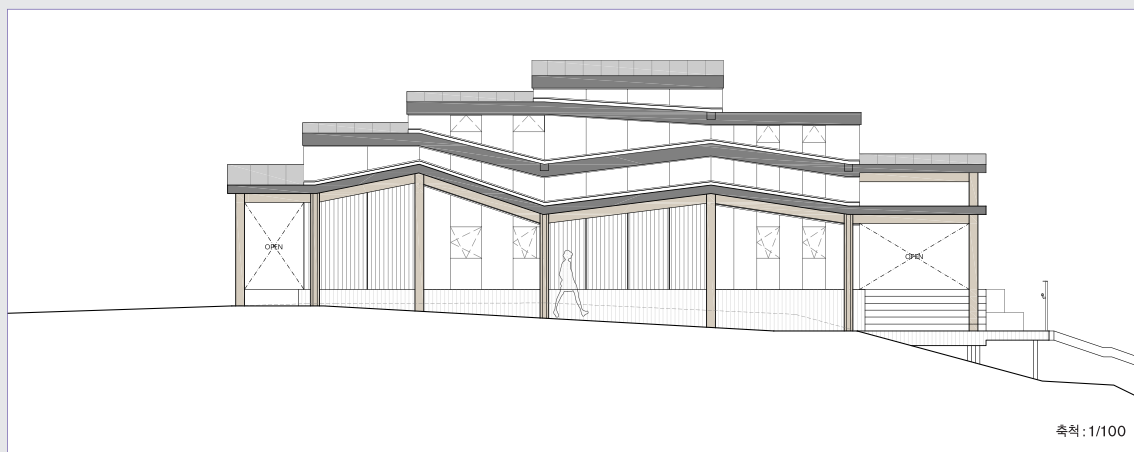
상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 도서관의 모습
하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책꽂이 월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작은 공공건축

100평이 안 되는 작은 도서관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공간감을 느끼며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혼자서 튀지 않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목구조의 나무를 활용한 공간을 제안하였다. 딱딱한 철골구조나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공원의 자연과 같은 목구조를 활용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고, 자연채광이나 자연환기 같은 친환경적인 건축요소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이 편안함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구로부터 중심까지 달팽이 껍데기 형태의 동선으로 걸어 들어가는 공간 구성은, 그저 조형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간의 스케일을 탁월하게 고려한 구분 방식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평일과 주말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도서관 안에 들어가 보면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사람, 앉아서 책을 읽는 사람, 책을 고르느라 걸어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건축가는 약 80평의 실내 공간을 나선형으로 흐르는 복도형 서가로 구현하고 3~4m의 복도를 형성함으로써 이러한 사용이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열람실 1’ ‘열람실 2’ ‘어린이 공간’ ‘디지털 학습 공간’ 등의 정형화되고 고루한 평면에서 탈피해 실내를 하나의 전체 공간으로 두면서도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세심한 구분에 오동숲속도서관의 개성과 힘이 있다.

이곳에 오는 다양한 계층의 마을 사람들은 기존에 안정감을 느꼈던 도서관과 다르게 유동하는 공간 곳곳에서 자신들의 목적성과 유목성을 동시에 경험한다. 작은 공간은 통합적이며 순환적 공간을 통해 규모의 작음을 극복하고 다변적 가치의 공간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지금의 오동숲속도서관은 단순히 공공도서관 역할을 넘어 음악회나 캠프 같은 마을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하며 공공건축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 오동숲속도서관 건축사무소



상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복도형 서가
하 풍부한 자연채광을 제공하는 지붕 틈과 창